



엘살바도르 테러범수용센터에 이감된 범죄 조직원들 15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테콜루카의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에 MS-13(마라 살바트루차) 등 19개 범죄조직 구성원 2,000여명이 이감돼 있다. 이번 이감은 당국이 지난달 23~24일 범죄조직원들을 세코트로 처음 옮겨가던 데 이은 것이다. 165만㎡의 터에 지어 지난 1월말 문을 연 세코트는 첨단 감시장비가 갖춰져 있고 4만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미 “북한 ICBM 발사 강력 규탄”

본토·한일 안보보장 모든 조처
군, 즉각적 위협 아니라 판단
안보리 대북 결의안 이행해야

미국 정부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규탄 입장을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완전한 대북 결의의 이행과 북한의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 질의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북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북한의 이웃국과 영내, 국제 평화와 안보,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가하는 위협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이 행위는 북한이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시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물질을 획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모든 국가가 완전히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북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

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왓슨 대변인은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미 장병과 영토, 우리 동맹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지만, 이런 발사는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북한이 자국민의 안정보다는 불법적인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라며 “우리 모든 국가가 이런 위반을 규탄하고 북한이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한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안보팀은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미 본토와 한국, 일본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독일 카셀대 소녀상 철거...학생들 “반환하라”

15일(현지시간) 독일 카셀대 총학생회 본관 앞 공원 평화의 소녀상 ‘누진’의 자리. 일본측의 압박 정황 속에 지난 9일 대학 측의 기습철거로 텅 비어버린 자리에는 이날 오후 학생들과 인근 시민들, 재독 한인들이 삼삼오오

몰려들었다. 총학생회가 대학 측의 기습철거에 항의해 소녀상을 제자리에 반환하도록 하기 위한 행사를 연다고 공지하자 소녀상이 있던 자리로 모인 이들은 100여명에 달했다. 그는 “처음 소녀상이 기습 철거됐다는 소식

을 알게 됐을 때 깜짝 놀랐다”면서 “솔직히 극도로 부끄럽고, 격분한 상태”라고 말했다. 제바스티안 엘러스 카셀대 총학생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대학 측이 소녀상을 지키고 이를 통해 배우려는 학생들의 노력을 지지하지 않고, (일본) 우익보수 정부의 압박에 굴복하니 경악스럽다”면서 “대학 측에 소녀상을 반환할 것을 명백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내게만 몇십억원 증여 백부 회사규모 수백억”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 인터뷰

“저 하나한테만 몇십억원의 자산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무조건 더 많다고 보편 됩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등 범죄 의혹을 소셜미디어로 고발한 손자 전우원씨는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에 관해 이같이 폭로했다.

본인과 가족을 ‘범죄자’로 지칭한 그는 전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을 가리키는 것이냐는 물음에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고 직장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일년에 몇 억씩 하던 자금들 때문이다. 학비와 교육비로 들어간 돈만 최소 10억인데 깨끗한 돈은 아니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을 꺼냈다.

구체적으로 비엘에셋이라는 회사의 20% 지분, 웨어밸리라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들, 준아트빌이라는 고급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넘어왔으며 모두 몇 십억원대 규모라고 밝혔다.

다만 “지금은 빼앗기거나 서명을 해서 (새어머니인) 박상아씨에게 양도한 상태”라면서 “웨어밸리 비상장주식은 아버지가 황제노역을 하고 나와 돈이 없으면서 ‘너희들에게 증여돼 있던 주식인데 새어머니에게 양도하라’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버지의 형제들인 전재국씨와 전재만씨, 그리고 사촌형제들이 물려받은 비자금 규모에 대해 묻자 “(저희보다) 무조건 더 많다”는 답이 돌아왔다.

돈의 서류상 출처 지인 위장
죄악 숨을 곳 없이 밝혀져야
‘할미 품 제발 돌아와’ 연락도

3남인 전재만씨의 와이너리 사업에 대해선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 가서 땅값을 확인해보라. 게다가 와이너리는 대규모 최첨단 시설이 필요해 돈이 넘쳐나는 자가 아니어서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분야가 절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리하면 전재국씨는 미디어, 전재용씨는 부동산, 전재만씨는 와이너리 등 “말도 안 되게 돈이 많이 필요한 사업들만 골라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전씨는 부연했다.

이러한 비자금 의혹이 쉽게 밝혀지지 않은 것은 “돈의 출처는 그들(가족)인데 서류상의 시작은 지인들로부터 나오게끔 했기 때문”이라면서 “예를 들어 웨어밸리도 경호원이 설립하게 해서 그런 조직들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라이브 등을 통한 전씨의 술한 폭로에 가족의 압박이 강할 것 같다고 묻자 “할머니(이순자씨)가 연락해 ‘돌아와라 제발, 니 할미 품으로’라고 했다. ‘할미가 얼마나 살지 모른다’라고도 했다”고 답했다.

이러한 할머니의 회유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소름이 끼쳤다”라고 전씨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담배 물고 맨발로”...중 절임식품 제조 논란

중국에서 불결한 환경에서 절임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이 현지 매체를 통해 또다시 공개돼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광둥TV는 세계 소비자 권익의 날을 맞아 15일 광둥성 산터우의 완차이 제조 공장의 비위생적인 생산 과정을 폭로했다.

완차이는 갯이나 배추를 소금 등 양념과 향신료를 넣고 절인 뒤 발효시키는 식품으로, 중국인들이 밀반찬으로 즐겨 먹고 컵라면 등에도 들어간다.

보도 영상에 따르면 공장 직원들이 담배를 물

고 지지분한 바닥에서 절임 채소를 다듬고, 절임통에 담은 채소를 맨발로 밟는가 하면 바닥에 떨어진 채소를 씻지도 않고 포장용 상자에 그대로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취재 기자가 “맨발로 절임 작업을 하면 발바닥이 쓰리지 않느냐”고 묻자 작업자들은 “익숙해지면 괜찮다”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작업자들이 맨발로 완차이 절임 통에 들어가고, 피우던 담배꽂이를 버리는가 하면 절임 채소를 더러운 바닥에 그대로 쌓아두기도 했다.

/연합뉴스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잇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